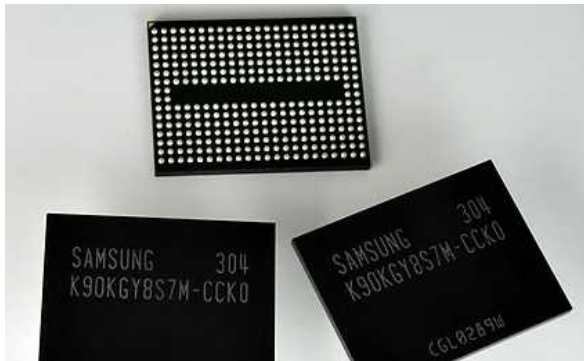


낸드플래시, 공급부족으로 오름세

6월 말 5.52달러로 월초보다 2.22% 상승 ... D램도 수급타이트 지속

세계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수급타이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
타이완 IT 전문지인 Digitimes는 7월6일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핵심부품인 낸드플래시 메모리 조달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.



특히, 임베디드 멀티미디어카드(eMMC), 임베디드 멀티칩패키지(eMCP)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낸드 장치는 3/4분기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.

이에 따라 낸드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상승세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반도체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DRAMeXchange에 따르면, 낸드플래시 64기가비트 8Gx8 멀티레벨셀(MLC)의 6월 말 평균 가격은 5.52달러로 6월 초에 비해 2.22% 상승했다.

Digitimes는 “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모바일기기 메이저들이 하반기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낸드플래시와 모바일 D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”며 “낸드플래시와 함께 모바일 D램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7/08>